

다문화 가정 선교를 위한 놀이목회상담 연구

박 은 정*

국문초록

본 논문은 국내 다문화 가정 선교를 위한 목회상담의 한 방법으로써 놀이목회상담을 제안하고 그 내용을 다루고 있다. 한국 교회는 해외 파송 선교를 통해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파하려는 노력을 경주해 왔으나 오늘날에는 다문화 가정이 새로운 선교 대상이 되고 있다. 본 연구자는 15년 간 한 교회의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다문화 예배를 담당하였다. 이 경험에 근거하여 다문화 가정 선교를 위한 효과적인 도구로써 ‘놀이목회상담’을 제안해 보려고 한다. 놀이는 사람을 편하게 하고 감동시키는 힘이 있기에 우리는 놀이할 때 카타르시스를 느낀다. Johann Huzinga는 놀이의 역할이 인간의 종교성과 시, 예술 등 문화의 근원적인 요소들을 연결해 주는 통로라고 강조한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그 창조 안에는 기쁨과 질서가 있었다. 따라서 문화와 언어가 서로 다른 이들도 하나님께 드리는 놀이 예배에 참여함으로써 상처를 치유 받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되는 창조의 기쁨과 질서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첫째,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일반적 이해와 신학적 이해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둘째, 놀이를 일반적, 심리학적, 신학적 차원에서 각각 이해하였다. 셋째, 다문화 가정의 선교를 위해 효과적으로 예배에 적용할 수 있는 놀이목회상담에 대하여 고찰해 보았다.

주제어: 다문화 상담, 목회상담, 성경적 상담, 성스러운 놀이, 놀이목회상담

• 논문 투고일: 2018년 9월 28일

• 논문 수정일: 2018년 10월 25일

• 게재 확정일: 2018년 10월 31일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 상담심리학과 조교수

I. 여는 글

국내 체류 이민자가 200만 명을 넘어섰고 다문화 가정도 100만 가구에 달한다. 이들을 위해 지방자치 단체들은 사회복지, 국제교류 담당 공무원, 사회 통합 추진단과 시 교육청 등으로 관련 위원회를 구성했다. 한 교육청은 다수의 통역 인력을 보유한 국제교류센터와 업무 협약식을 체결하고 다문화권 학부모들을 위해 중국어와 러시아어, 일본어와 베트남어 등 출신국의 언어로 가정통신문을 번역하고 발송하여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줄여주고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와 서울 은평구는 ‘어바웃 빌리지(어울려 서로 돌봐주고 바라보며 소통하는 이웃)’라는 공공임대주택 8가구를 7월 중 신사동 200-133(터널로 169-18)에 공급해 다문화 가정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기로 했다. 충남도교육청은 ‘다우리 다문화 교육사업’이라는 맞춤형 교육지원을 진행 중이다. 또한 도교육청은 다문화교육센터 운영학교를 작년 85개교에서 올해는 117개교로 확대 개교했다. 이 중 60개교에서는 공동체 생활과 다문화 가족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동아리를 진행하고, 40개 학교에서는 이중 언어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대구지역의 다문화 가정은 2010년 5,321가구에서 2016년 6,901가구로 1,580가구나 늘었다. 같은 기간에 다문화 자녀의 수는 3,389명에서 6,423명으로 약 2배 증가하였다. 이를 위한 대처방법으로 대구시 교육청은 3월부터 한국어가 능통한 7개국, 31명의 결혼이민여성을 ‘다문화 에듀 코디네이터’로써 채용해 학령기 자녀를 양육하는 다문화 가정에 해당 모국어를 활용하여 학교생활에 필수적인 정보를 안내하고 있다(국민일보, 2018. 3. 20).

위와 같이 다문화 가정들을 돕기 위한 국가 시스템들은 조금씩 체계적으로 준비되어가는 실정이지만 교회 공동체의 적극적인 준비는 비교적 부족한 실정이다. 그렇다면 다문화 가정을 위한 교회 공동체의 준비

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인가? 조혜정(2011)은 한국교회들이 한국의 다문화 사회화를 인정하고 이들과의 공존을 선도하며, 이들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효과적인 동역자로 바라보고, 체계적이며 중장기적인 접근을 시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Martin Luther가 그리스도인이 먼저 가난한 이들의 돌봄을 위하여 법령을 만드는 용기와 진지한 행동을 가져야 한다고 촉구했던 것처럼 한국사회에서 현재 심령이 가장 가난한 자들인 다문화 가정들을 위해 교회는 더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김옥순, 2011). 한국교회는 그동안 수많은 재정을 쏟아 부었던 해외 선교사역 대상자였던 외국인들이 스스로 한국으로 들어오고 있는 현상에 주목해야 한다. 따라서 각 교회의 주된 선교목표가 더 이상 해외 선교가 아닌 국내외국인 거주자 또는 다문화 가정과의 인격적인 관계 형성을 통한 선교로 점차 전향되어야 함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부터 다문화 가정 선교를 위한 교회의 준비는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해외로 보내는 파송 선교’를 고수하며 해외 선교를 위해 수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해 왔고, 선교사들은 세계 곳곳에서 열심히 사역중이다. 그러나 해외파송 선교에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장애물이 존재한다. 언어의 장벽, 현지 문화와 생활에 대한 적응, 비자문제와 이주 자체가 주는 어려움 등이 존재한다. 반면 한국에 들어와 있는 다문화인들과 타종교인들에 대한 선교는 비용과 상황 면에서 매우 유리한 위치에 있다(서연숙, 2014). 따라서 한국교회는 급속하게 증가하는 다양한 국적과 종교를 지닌 외국인들이 선교대상자들로써 스스로 이주해 들어오고 있음에 주목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준비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고는 다문화 가정 선교를 위한 준비로써 효과적인 목회상담 방법의 한 도구인 ‘놀이목회상담’을 제안한 것이다.

독일은 이주민 배경을 지닌 사람들이 2009년 현재 1600만 명으로 독

일 전체 인구 중 19.6%를 차지하는 이주국가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이에 대한 독일교회의 선교 접근 방식은 첫째, 개신교회와 주교회가 사회 통합적 관점에서 함께 이주민들의 정착을 돕는 디아코니아적 접근 방식을 갖는 것과 둘째, 독일 거주 외국인들을 타문화권 선교와의 동일한 관점으로 바라보고 복음을 전하며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돕는 방식이다. 셋째, 이주민들이 설립한 교회들과 진지한 협력관계를 맺으며 상호 배움과 도전을 통해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고 서로의 발전과 성숙을 위해 협력하였다(한국일, 2012). 계재광(2012)은 다문화 가정을 포용하기에 적합한 교회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한국의 상주교회와 상주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사역들을 연구하였다. 그는 다문화 사역의 현장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 무엇보다도 첫째, 언어와 종교적인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둘째는 소수자인 결혼이주 여성들의 공동체성의 문제, 셋째는 언어적 문제와 연결된 소수 공동체를 이끌어줄 지도자의 문제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그는 또한 다문화 가족과 함께 하는 신앙공동체가 지향해야 할 모습은 서로의 짐을 나눠지고, 서로에게 그리스도가 되는 공동체라고 강조한다. 교회는 언어적, 인종적 한계를 넘어서 다름을 포용하고 환대하는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신학적 비전(Theological Vision)을 올바로 세우고 교회 내에서는 이를 위하여 다문화 가정을 환영(Welcoming), 수용(acceptance), 결속함(solidarity)으로써 위임의 리더십을 세울 수 있는 다문화 사역자를 훈련하고 다음세대를 위한 다문화 신앙공동체가 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계재광, 2012).

본 연구자는 15년 동안 한 교회의 외국인 노동자 사역을 맡아 다문화 가정 선교를 위해 놀이목회상담을 실천하면서 이들에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격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통한 놀이목회상담이 효과적이었음을 체험하였다. 이러한 사역은 다문화 선교 대상자

들과 매주 놀이예배를 통해 문화와 언어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일체감 있는 관계를 맺는 것이 가능하였으며 이들의 생일날 이들의 집을 방문하여 함께 전통놀이에 참여하고 명절날 교회에 함께 모여 집단 놀이목회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인격적인 상호관계 아래서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 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관계를 맺어 가는 일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삶을 나누는 일이고, 참여하고 어울리며 집을 방문하며, 우정을 맺고, 삶과 마음이 그들과 하나가 되는 노력을 통해서 성취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영혼 구원을 목적으로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되는 것”(고전 9:22)은 목회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기술과 훈련을 받을 때에 더 효과적이다. 안경승(2005)은 복음의 씨를 뿌리기 전에 마음과 영혼의 밭을 옥토 밭으로 개간하기 위하여 서로 만나고 이해하고 수용하는 인간관계의 지혜에는 상담적 접근을 필요로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복음전도를 예비하는 예비상담이라 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놀이목회상담 역시 효과적인 복음전도를 위한 예비상담의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문화 가정 선교를 위한 놀이목회상담 연구를 위해 다음 장에서는 먼저 다문화 가정을 일반적, 신학적 측면에서 이해한 후, 놀이목회상담의 전 이해를 위하여 놀이를 일반적, 심리학적, 신학적 차원에서 고찰하고 놀이목회상담의 효과적 교회적용이란 어떠한 것인가에 대하여 연구해 보고자 한다.

II. 펴는 글

1.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일반적·신학적 이해

1)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일반적 이해

Derald Wing Sue와 David Sue(2012: 65-75)는 이제 우리 사회에서 다문화가 더 이상 낯선 용어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다문화가정과 다문화상담 등 이전에는 생소했던 표현들이 이제는 생명력을 띠고 널리 통용되고 있으며, 우리 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변화하고 있다는 인식이 힘을 얻고 있다. 다문화는 다인종과 다민족으로 구성된 국가와 사회에서 문화의 중심을 이루는 주류문화에 대한 하위 개념으로써 다양성의 존중을 내포하는 개념이다.” 다문화 주의는 현대사회가 문화적, 정치적 지위를 가진 상이한 문화집단을 평등하게 품을 수 있어야 한다는 믿음이다(유네스코 아시아 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2008). 한국 사회도 현재 급격한 다문화 사회로 전환되고 있다. 이는 특정 중심문화가 한국 사회에서 지배적이라는 뜻이 아니라 때와 상황에 따라 지역문화의 유기적 흐름 속도가 빨라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지역 문화의 정체성 유지에 따른 변화 속도가 느린 것을 단일 민족 문화라고 부른다면, 지금은 속도가 빨라진 새로운 지역 문화가 한국 사회 전반에 자리하면서 민족문화의 개념을 다문화로 용해시켜 나가고 있다(안경식 외, 2008). 우리나라에서 다문화라는 용어는 2005년부터 정부 정책과 이주노동운동 진영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이는 국제 결혼 이주여성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결혼 이주여성의 처우가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다루어지게 된 것과 함께 한다. 여러 지원 단체들과 정부는 결혼 이주여성의 문제를 푸는 해법으로 다문화라는 용어를 채택하였고, 2006년에는 정부, 학계, 이주노동운동 진영을 망라하여 우리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다문화

가족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그 용어도 폭넓게 사용되기 시작하였다(김범수, 서은주, 손병돈 외, 2007).

다문화 가정은 서로 다른 인종에 의하여 자녀들이 출생하는 가정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혼혈 가정이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그러나 혼혈가정이라는 말은 차별성을 극대화하고 거부반응을 일으킬 수 있기에 다문화 가정이라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국제결혼이라는 법률적 용어도 사용되었지만 이는 결혼 당사자만 의미하고 국적이 다른 사람과의 결혼만을 의미하기에 그러한 결혼으로 인해 형성된 구성원이 다문화인 것을 모두 지칭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다문화 가정이라는 단어는 그 가족 내 구성원의 인종적 다양성과 한 가정 내에서 두 개 이상의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난다는 특징을 나타내므로 적절한 표현이 될 수 있는 것이다(김범수, 서은주, 손병돈 외, 2007). ‘다문화 가족 지원법’ 제2조에 따르면 ‘다문화 가족이란 결혼 이민자 또는 귀화 허가를 받은 자와 대한민국 국적자로 이루어진 가족’을 말한다(차용호, 2008).

김금자(2009)는 통계청의 통계와 다양한 연구 자료들을 근거로 2020년 한국 사회 내에서 국제결혼을 통한 다문화 가정 자녀의 수를 167만 명이 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이들에 대한 다양한 돌봄적 접근이 시급하다고 지적하였다. 이처럼 다문화 가정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다양한 문제들 또한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다문화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국가와 사회의 책임으로만 여기고 교회가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 현재 교회로 모이고 있는 많은 다문화 가정들을 교회 공동체가 효과적인 목회적 돌봄의 방법으로 도울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선교의 디딤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Charles Gerkin(1999)은 목회적 돌봄은 언제나 인간의 경험에 응답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인간의 경험에 응답하는 것이 목회적 돌봄이라면 놀이 또한 인간 내에 있는 에너지와 깊이 묻혀 있던 정서를 표현할 기회를 준다. 또한 감각과 정서를 알아차

릴 수 있는 기회를 주며 해체되었던 정서, 인지과정과 사건들을 내면에서 조직할 기회를 주기 때문에 적절한 목회적 돌봄의 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다.

2) 다문화 가정에 대한 신학적 이해

Andrew D. Lester(1999)는 목자가 보호하고 인도하며 양육과 치유, 그리고 찾음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은 가장 어리고 약한 새끼양이 먼저이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현재 우리 사회 구성원 중 목자의 돌봄을 받아야 할 가장 어린 양들은 바로 다문화 가정일 것이다. 주님은 공적인 사역을 행하며 인종, 성별, 사회적인 지위 등을 모두 초월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실행하였다. 이는 성경에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구리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밋 사울이라”(행 13:1)라고 기록하는 데서 증명이 된다. 이는 그 당시 안디옥 교회 안에 유대인뿐만 아니라 외국인이 함께 교회 구성원으로 있었던 것을 나타낸다. 김정원은 성경이 나그네와 고아, 과부 등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관심과 돌봄을 법으로 제정하였다고 강조하였다(김정원, 2017). 성경은 또한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억울하게 하는 사람들은 법적으로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다(신 27:19). 예수님은 부자 청소년에게도 강도 만난 자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하여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눅 17:18)고 명령하였다. 또한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엡 2:19)고 외치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모두 하나님의 자녀임을 강조하였다(구영철 외, 2004).

성경에서는 이주민을 가리키는 용어로 ‘나그네’, ‘이방인’, ‘타국인’, ‘외국인’ 등의 표현이 사용된다(박천웅, 2006). 구약에서 다문화 가정을

나타내는 용어는 ‘게르 גֵּר’, ‘토좌브 תושב’, ‘노크리 נכרי’ 등이 있다. 이 중 다문화 가정의 핵심용어인 게르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게르는 구약 성경 여러 곳에서 사용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거류민(게르)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들을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게르)을 너희 중에서 나온 자 같이 여기며 자기 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게르)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를 들 수 있다. 게르는 자기의 조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자신 소유의 땅을 가지지 못한 상태로 정착자인 이스라엘 민족들의 보호를 받는 이들을 일컫는다. 이 용어는 단순히 외국인들을 가리키는 단어가 아니며 오랜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생활하고 거주하여 소정의 사회적, 법적인 직위를 보장 받는 외국인 영주권자로 생각할 수 있겠다. 구약성경에 나오는 게르는 어찌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 이를테면 전쟁, 기근 등으로 인하여 자기들의 나라를 떠나 본인 또는 가정단위로 전혀 다른 정착지로 거류하게 된 이들을 의미한다(강문규, 2017).

다문화 가정과 연관되는 단어로 신약성경에서는 ‘제노스 ζενος’, ‘파로이코스 παροικος’ 그리고 ‘프로셀뤼토스 προσηλυτος’를 사용하였다. 구약에서 다문화 가정을 뜻하는 히브리어 게르는 신약시대에 와서 그 의미상 ‘제노스’ 또는 ‘파로이코스’와 가까운 것으로 설명되어 질 수 있다. 특히 신약성경에서의 표현을 보면 ‘제노스’가 대표적으로 쓰였는데 이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엡 2:19)에서 사용된 ‘외인’ 또는 ‘나그네’를 의미한다. 마태복음 25장 35, 38, 43, 44절에서 예수님은 미래에 재림하실 것을 계획하고 오른편과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권면할 때 나그네 또는 외국인을 뜻하는 ‘제노스’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주님의 말씀 중에 언급되는 ‘제노스’는 문맥상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로 풀이된다. 주님은 자신을 ‘제노스’라고 표현하시

면서 외국인을 잘 접대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한다. 이처럼 예수님께서서는 핵심적인 계명으로 사회적 약자인 외국인에 대한 환대를 본인과 직접적으로 연관 지어 강조하였다(강문규, 2017). 기독교는 출신배경과 언어, 문화, 종교적 차이를 뛰어 넘어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할 에큐메니칼 정신을 추구해야 한다. 즉 교회의 사명은 외국인 이주자들을 이방인(stranger)으로 여기고 편견과 차별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치유 묵회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다. 다문화 가정은 한국 생활에서 현재 차별과 편견으로 고난당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영적이고 심리적인 치유와 돌봄 묵회는 교회가 품어야 할 사명이다(서연숙, 2014).

성경에서 예수님은 다양한 문화와 민족을 지닌 이들을 직접 상담하였고 예수님으로부터 상담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 치유되고 회복되었다. 예수께서는 수가성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을 상담하였고, 간음한 여인을 상담하였다(전형준, 2018). 성경에서는 대위임 명령에 따라 이웃을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고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안식일, 안식년, 희년 등의 제도를 제정하였다. 또한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당하는 이들을 직접 찾아갔고, 십자가 죽음으로 인류의 죄 대속을 통해 디아코니아를 완성하며 모든 고통과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였다. 교회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의 본을 따라 교회의 본질적 기능인 디아코니아를 실천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한국교회는 이미 먼저 우리 가까이 다가와 있는 다문화 가정들을 돕는데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안경승(2005)은 선교와 상담이 사람에 관한 관심과 사람의 생명이 풍성하여지도록 집중한다는 점에서 긴밀한 관련성을 지닌다고 하였다. 선교 현장에서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상담자의 긍휼한 마음과 상담의 전문적인 기술과 방법이 필수적이다. 상담의 근본적인 전제이자 목적

은 내담자가 구원을 향해 마음의 문을 열도록 돕고,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여 구원받은 영혼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선교적 활동이 되어야 한다. 안경승은 복음을 전달하고자 하는 사람이 대상자들과 일체감 있는 관계를 맺는 것이 복음전달을 위하여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이라고 강조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본인이 섬기는 이들과 동질감을 가지기 위하여 그들의 생각을 이해하여주고, 그들의 가치관을 분별하여주고, 그들이 느끼는 방법으로 사랑을 전달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외적인 모습이나 문화와 언어는 다른 이들이라도 내면의 마음은 교류가 가능하며 인격적 만남이 가능하다. 기쁨의 소식인 복음은 주님이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던 것과 같이 인격적인 만남들을 매개체로 하여야 한다. 효과적인 복음전달의 핵심은 전하는 자와 듣는 자 사이의 인격적인 관계가 포함되어야 하며 복음을 듣는 자가 전하는 자를 인격으로 받아들이지 않고는 복음 메시지가 수용되기 어렵다.

다음에서는 교회가 다문화 가정에게 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한 방안으로 목회적 돌봄의 한 방법인 놀이목회상담을 다루려 한다. 그 이유는 언어와 문화가 다른 민족들 간에도 놀이를 통한 소통과 공감이가 가능하며 이를 통해 복음 전달의 기초가 세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먼저 놀이를 일반적, 심리학적, 신학적 차원에서 각각 고찰해 보고자 한다.

2. 놀이의 이해

1) 놀이에 대한 일반적 이해

우리나라에서 놀이라는 말은 ‘웃다’라는 말과 관련이 있다. 다시 말하면, ‘웃다’는 ‘놀다’, ‘노래’, ‘놀이’ 등과 의미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놀이’라는 개념은 ‘노래

부르며 웃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김상일, 1988). Roger Caillois는 놀이라는 말이 항상 자유로움이라는 관념을 불러일으킨다고 하였다(Caillois, 2012). Johann Huizinga는 그의 저서 호모 루덴스(Homo Ludens: 놀이하는 인간)에서 놀이하는 인간이 가장 인간다운 인간이라고 소개한다. 그는 놀이란 일정한 시공(時空)의 한계 내에서 놀이 자체에 목적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동의되어지고 규칙에 따라 행해지는 긴장과 즐거움의 감정을 느낄 수 있는 행위라고 주장한다. 놀이를 함으로써 인간은 일상생활과는 '다른' 의식을 갖게 되며 놀이는 자발적인 행동 혹은 작업이라고 정의된다. 그는 인류 역사에서 사소하고 하찮은 것으로 여겨져 온 놀이가 사실은 우리를 가장 인간답게 만들어 준다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Huizinga, 2018).

놀이는 사람을 편안하게 하고 감동시키는 힘이 있어서 우리는 놀이할 때 환희하며, 즐거움 속에 빠져들어 카타르시스를 느낀다. Huizinga는 놀이의 역할이 인간의 본능과 종교, 전쟁, 시, 예술 및 기타 문화의 근원적인 요소를 연결해 주는 통로라고 강조한다. 이러한 정신의 힘을 그는 재미(fun)라고 부르며 이 속에 놀이의 본질이 있고 놀이의 치료적 기능이 담겨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러한 놀이의 본질을 설명하는 동시에 계속해서 놀이가 뜻이 있는 하나의 의미 기능이라는 표현을 한다. 즉 놀이에는 직접적인 욕구를 초월하고 자신의 생활에 의미를 부여하는 기능이 있다고 하였다. 그는 특히 '놀이에 몰두하는 힘'에 유의하면서 이 속에 놀이의 본질, 놀이의 원초적인 성질이 깃들어 있다고 한다(Huizinga, 2018).

Harvey Cox는 축제와 놀이와의 유사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축제란 지금과는 전혀 다른 생활 상태를 상정(想定)하는 능력이다. 이는 인간만이 지니는 특이한 능력의 발로로서, 이를 통하여 인간은 다른 사람들의 기쁨과 지난 여러 시대의 경험을 자기의 생명 안에서, 용

화하고 흥미한다. 축제는 하나의 놀이형식으로서 이를 통하여 인간은 과거를 포함한 넓은 삶의 영역을 자기 자신의 체험지대로 삼게 된다. 축제가 인간의 현재에 과거의 사건들을 기억하게 함으로써 인간경험을 충만하게 하는 것이라면 환상은 인간의 삶을 미래의 영역으로 확대시키는 일종의 놀이라고 볼 수 있다(Cox, 1973).

Huzinga 또한 축제와 놀이 사이에 본질적인 유사함이 있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놀이와 축제가 둘 다 즐거움이 충만하다는 점과 시간과 공간의 제한이 있다는 점, 순수한 자유와 엄격한 규칙과의 융화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축제와 놀이의 공통된 특징으로 설명하였다(Huzinga, 2018). 이처럼 놀이는 질서가 있는 자유롭고 즐거운 삶의 축제 현장이다. 놀이의 장을 통하여 사람들은 각자 삶에서 느끼는 고통, 슬픔, 걱정을 넘어서서 치유 받고 새로운 삶의 에너지를 가득 채워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갔을 때 삶을 즐기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 그렇기에 다문화 가정에게 교회공동체가 복음을 전하는 축제와 놀이의 장이 되어줄 수 있다면 가장 효과적인 선교의 통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놀이에 대한 심리학적 이해

사회발달 심리학자 Erik. H. Erikson은 놀이가 통합에 이르기 위한 유년기 자아의 노력을 이해하는 열쇠라고 하였다. 또한 인간이 놀이를 통하여 정서와 감정을 해소한다고 하였다. 놀이를 통해 인간은 과거의 좌절로부터 상상적 안도의 숨을 돌리며, 새로운 대상을 조작하는 법을 배운다. 그는 심리치료에 있어서 놀이는 아동이 욕동 해소를 통하여 자신의 건강한 자아상을 만들어가는 매개체가 된다고 하였다(Erikson, 2014). Melanie Klein은 아동이 놀이를 통하여 자신의 내적 정신 실재를 현실적인 것으로 바꾼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는 아동 자신과 신체 내부에 자리 잡고 있는 정신 실재가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아이의 놀이에

투사되어 표현된다는 것을 의미한다(Klein, 1999). Donald W. Winnicott 역시 Klein에 근거하여 아동이 작은 장난감들을 가지고 놀거나 아동의 다른 놀이를 관찰하는 것이 아동의 내면세계를 들여다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Winnicott, 1997). Klein은 놀이가 자연스러운 표현매체이기에 언어가 발달되지 않은 개인의 경험이나 정서, 복잡한 사고의 표현 등의 수단으로써 놀이를 해석하고자 하였다.

Winnicott은 놀이 자체가 치료요법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아이로 하여금 놀 수 있도록 준비해 주는 것이 그 자체로 직접적이고 보편적인 적용성을 가진 심리치료라고 하였다. 놀이는 항상 창조적인 경험이고, 삶의 기본적 형태인 시공의 연속성 안에서의 경험이다. 그는 아동과 성인이 창조성을 발휘하고 자신의 전체 인격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되는 것은 놀이로부터라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개인이 자아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창조적인 존재가 되는 것으로 가능하다고 하였다. 자기 탐색은 심리적 중간공간인 초기 형태의 놀이로부터 올 수 있다. 이러한 중간공간에서 창조적인 것이 나온다. 이 창조성은 개인 인격의 일부분으로 조직화되고 궁극적으로 총합을 이루어서 한 개인이 만들어진다고(Winnicott, 1997). 따라서 한 개인이 심리적인 상처와 상실감을 극복하고 창조성을 회복하여 총합을 이룬 개인이 되려면 놀이라는 심리적 중간공간에서의 경험이 꼭 필요하다.

3) 놀이에 대한 신학적 이해

Jerome W. Berryman은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 알 필요가 있는 지식은 죽은, 과거 행동의 찌꺼기가 아니라 오히려 신령한 영의 현재 임재하심이라고 하였다. 인간은 놀이하면서 자신을 둘러싼 강압적인 환경으로부터 스스로를 자유롭게 하면서 영원의 시간과 만난다. 따라서 놀이의 정신은 기쁨으로 충만한 신적 원리가 인간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다

(Berryman, 2011). 김재은은 하나님의 창조도 놀이의 속성을 지니고 있었다고 언급한다. 하나님의 창조에는 창조의 기쁨과 질서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놀이에는 기쁨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놀이를 통하여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셨듯이 인간도 창조주와 함께 하는 놀이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다(김재은, 2004). 따라서 교회 공동체는 놀이 예배에 참여함으로써 상처를 치유 받고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신 피조물대로 회복되는 창조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다.

임경수는 놀이와 씬은 인간의 영역을 떠나 신성한 하나님의 영역인 초월성을 맛볼 수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임경수, 2004). 또한 Harvey Cox는 종교적 인간이란 자신의 생존을 보다 큰 역사와 우주적 관점에서 파악하는 사람이라고 주장하였다. 더불어 종교인은 축제를 통하여 과거의 전통과 함께 우주적 개방성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다고 하였다(Cox, 1973). Cox의 주장처럼 종교적 인간은 축제의 장인 놀이 속에서 하나님과 놀이할 수 있다면 초월적 신앙 체험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을 놀이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고, 이 놀이를 이어갈 수 있도록 삶의 환경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계속되는 하나님의 창조사역을 이루어 가도록 사람에게 창조력을 주셨으며, 사람의 창조적인 놀이에서 생명력이 나올 수 있도록 허락 하셨다. 하나님은 계속되는 창조를 보존하고 유지함으로써 창조를 완성해가는 동역자로 인간을 불러주시고, 우리 삶을 통해서 재생산(reproduction)으로서의 생명력, 인격의 변화(transformation)로서의 생명력이 이어지게 하였다(양금희, 2011).

지금까지는 놀이의 일반적, 심리학적, 신학적인 고찰을 통하여 놀이목회상담의 전 이해를 하였다. 이제부터는 다문화 가정 선교를 위한 교회 공동체내 놀이목회상담 적용에 관하여 고찰해 보려한다.

3. 다문화 가정 선교를 위한 교회 공동체내 놀이목회상담 연구

1) 다문화 가정 선교 도구로서 놀이목회상담의 필요성

교회는 그 본질적인 기능인 디아코니아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한국 교회는 몇몇 뜻있는 교회를 제외하고는 교회 내 현상유지에만 집중하고 있기에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대처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상담에 대한 다문화적 접근은 상담 안에서 ‘제4의 힘’으로 묘사되고 있다(한재희, 2004). 상담에 대한 다문화적 접근의 연구들은 보편적 차원, 문화적 차원, 개별적 차원들에서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다문화 상담에 관한 대표적인 국외 연구로는 일반상담에서 Derald Wing Sue와 David Sue의 연구, 목회상담에서의 초문화 상담을 제시한 David Augsburger, 상호문화 목회상담을 제안한 Emmanuel Lartey의 연구가 있다(Derald Wing Sue & David Sue, 2012 ; David Augsburger, 2005; Emmanuel Lartey, 2011). Sue와 Sue(2012)는 모든 인간은 인종의 구성원이고 호모 사피엔스라는 공통점을 공유한다고 말한다. Lartey(2011)는 인간이 누구나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어 하는데 여기에는 인종, 민족, 문화가 상관없다고 한다. 우리는 모두 무기력하게 태어나고, 의존관계에서부터 성장하여 상대적으로 자기를 관리하는 방향으로 성장하게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모든 인간은 인간되게 하는 특성들을 공유한다. Lartey는 목회적 돌봄은 인간에 대한 깊은 관심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주장한다. 특히 타문화권에서 적응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 가정에 대한 깊은 관심은 목회적 돌봄과 기독교 상담이 감당해야 할 위기 선교 현장이기에 최근 이와 관련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다문화 가정을 위한 기독교 상담에 관한 주요 국내 연구로는 안경승(2005)의 “타문화 선교현장에서의 기독교 상담에 관한 연구”와 서은경

(2009)의 “다문화 가정에 대한 기독교 상담학적 접근에 관한 연구”, 변영인(2010)의 “한국 다문화 가정을 위한 기독교 상담”, 안정승(2011)의 “다문화 시대와 기독교 상담”, 김미경(2011)의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적응을 위한 기독교상담”, 한숙자(2011)의 “한국의 다문화가정에 대한 기독교상담전략의 모색”, 변영인(2012)의 “한국 다문화 가정에서의 아동 이해와 교회에서의 기독교 상담에 관한 고찰”, 조귀삼(2012)의 “다문화 아동의 학업적응을 위한 선교 케어 연구”, 전요섭(2013)의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 간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신앙, 자아존중감, 결혼 적응, 양육태도와 아동의 정서적 고립감 및 학교부적응 간의 구조적 관계에 관한 연구”, 전형준(2013)의 “다문화 가정 청소년 자녀를 위한 개혁신의 목회상담 방안”, 변영인(2018)의 “한국 다문화 가정에서의 아동 이해와 교회에서의 기독교 상담에 관한 고찰” 등이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다문화 가정들을 대상으로 한 기독교 상담의 이론과 임상에 관해 고찰되어졌다. 이에 더 나아가 본 연구에서는 교회가 다문화 가정을 위한 선교적 공동체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독교 상담적 방법의 하나인 놀이예배에 기초한 놀이목회상담을 제안하려 한다.

다문화 가정의 선교를 위해 교회공동체는 먼저 ‘선교 공동체로서의 교회’ (Church as Missional Community)로써 정체성을 가져야 한다. ‘선교 공동체로서의 교회’에 기반이 되는 선교적 교회론은 교회가 스스로를 이해하는데 변화를 갖게 함으로써 이전에는 교회가 선교사 파송의 주체로 인식되었으나, 이제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파송 받은 공동체로서의 자기이해를 갖도록 하는 것이다. 즉, 교회는 앞서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선교에 도구로써 참여하도록 부름 받았다는 것을 선교적 사명으로 이해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선교의 목적은 교회의 자체 존립이나 확장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증거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에 있다(계재광, 2016).

이에 연구자는 다문화 가정의 선교적 공동체로써 올바른 신학적 비전을 세우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복음이 효과적인 방법으로 전달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언어적 다양성을 뛰어넘을 수 있는 놀이목회상담이 복음전파와 목회상담의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직접 경험하였다. 또한 다문화 가정을 환영하고 수용하고 결속할 수 있는 리더십으로써 각 민족별 놀이목회상담사를 양성하여 중간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도와야 한다고 제안한다. 본 연구자가 제안하는 ‘놀이목회상담’(Play Pastoral Counseling)의 의미를 기존의 놀이치료와 비교하여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Kevin J. O'Connor(2001:7-8)는 “일반적인 놀이치료라는 것은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치료자가 심리적인 문제를 지닌 내담자를 치유하기 위해 놀이의 체계적인 힘을 적용시키는 대면 상담 관계”로 정의한다. 임상현장에서 놀이치료는 놀이치료실 내에서 전문 놀이치료사와 내담자가 주로 일대일로 진행되는 상담을 지칭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기존 놀이치료실의 제한점을 극복하고 교회 내 다문화 가정에게 실시 가능하도록 적용한 ‘놀이 예배’ 차원에서의 ‘놀이목회상담’을 제안하려 한다. 덧붙여 본고에서 소개하는 ‘놀이목회상담’은 교회공동체에서 개인 또는 다수에게 실시할 수 있는 목회상담적 놀이치료의 한 방법으로 정의내리고 고찰해 보고자 한다.

2) 놀이로 드리는 예배 : 놀이목회상담

오윤선(2012)은 다윗이 율법시대의 사람으로서 율법의 행함에 복의 기준을 두고, 바울이 신약 복음시대의 사람으로서 복의 기준을 이신칭의에 두었다면, 복음의 주인이 되시며 율법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심령인 마음의 변화와 성령화에 복의 기준을 두었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또한 현대 다문화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복의 기준으로 세우신 심령의 변화, 성령화, 복음화에 초점을 맞춘 사역을 하여야 한다

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심령의 변화, 성령화, 복음화는 어느 현장에서 주로 일어나는가? 그것은 바로 예배 현장일 것이다. 전요섭(2006)은 예배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사역으로 거듭난 사람이 예수님의 인격과 구원 역사를 인식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영광, 존귀, 찬양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의해 올려 드리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그는 또한 예배가 주관적인 마음의 경험과 태도, 그리고 외적인 행동의 결합이라고 강조하였다. 최승근(2016)은 우리가 예배에서 몸으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은 의례를 통해 지식을 반복적으로 전달받아 머리로 알 뿐 아니라 그 지식이 포함된 행위를 함으로써 몸으로도 익히기 때문이다. 예배를 통해 우리 몸은 우리 행동의 의미를 익히고 다음 행동을 어떻게 해야 할지 영향을 받게 된다. 따라서 무엇을 믿는지의 내용이 내재된 몸짓과 자세를 예배에서 실행하도록 교회 공동체는 성도들을 가르치고 훈련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였다.

본 연구자는 다문화 가정의 심령 변화와 복음화를 위한 효과적인 예배 방법의 하나로써 놀이목회상담을 제안하면서 놀이 예배 전문가인 Jerome W. Berryman의 ‘성스러운 놀이(Godly Play)’를 살펴보고자 한다(Berryman, 2011). 더불어 본 연구자가 사역하였던 다문화예배 현장에서 ‘성스러운 놀이(Godly Play)’의 방법을 예배에 적용하였던 경험을 소개하고자 한다. Berryman은 가장 가치가 높은 놀이는 ‘종교적 놀이’이며, 그것은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놀이, 즉 ‘성스러운 놀이(Godly Play)’라고 하였다. 그 놀이는 우리를 존재의 한계에 직면하게 하고, 그 한계에서 바로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돌파구 찾도록 도와주는 통로가 된다. 따라서 ‘성스러운 놀이(Godly Play)’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더 알게 되며 심령이 변화되어 존재의 한계를 넘어서기도 한다. ‘성스러운 놀이(Godly Play)’는 ‘놀이’가 단순히 오락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놀이를 통해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통로라는 점을 밝힌다. 이처럼 ‘성스러운 놀이(Godly Play)’가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자리가 된다고 볼 때, 이 자리는 대상관계 심리학자 Donald Winnicott이 설명하는 중간공간에서의 종교경험과 함께 설명되어 질 수 있을 것이다.

Winnicott이 1940년에 옥스퍼드주 ‘정부피난기구’ 정신과에 있을 때, 제2차 세계대전 중 가족이 사는 도시로부터 격리되어서 폭탄의 급습으로부터 피신한 영국의 아동들을 만날 수 있었다. 그는 전쟁 동안에 이러한 집 없는 아동들과 성인 정신병자들에게 관심을 집중하였다. 이들을 돌보며 연구한 결과로 Winnicott은 1971년에 「놀이와 현실」을 생애 마지막 저서로 출간하였다. 그가 이 연구를 시작했을 때 정신분석학의 관심은 각 개인의 내적인 현실과 사람들 사이의 상호관계에 있었다. 그러나 Winnicott이 죽을 당시 그가 주장해왔던 인간의 내면과 외부 세계 모두에 공헌하는 놀이로써의 중간공간 개념에 새로운 관심이 모아졌다. 이 중간공간은 인간의 내면과 외부의 현실이 분리되어 있지만 동시에 이 둘이 서로 연관되도록 계속적으로 머무는 일종의 ‘쉼의 장소’이다. 이 중간공간은 Berryman(2011)이 설명하는 ‘성스러운 놀이(Godly Play)’에 있어 특별히 중요한 심리적 장소로 설명되어진다. ‘성스러운 놀이(Godly Play)’의 놀이 장소는 삶과 존재의 중간공간이다. 이 놀이에서의 가치 있는 도구들은 종교언어의 ‘도구’들이다. 놀이를 형성하는 규칙들은 하나님과 인간의 대화처럼 창조적 과정의 패턴이다. 예를 들어 병원 놀이는 아동들이 병원과 관련된 놀잇감을 가지고 놀면서 병원에서의 경험을 간접적으로 체험함으로써, 병원에 대한 두려움에 대처하도록 개발된 것이다. 또한 그런 놀이는 아동들이 안전한 중간공간에서 고통과 두려움을 표현하고 그러한 감정들을 치유하도록 돕는다. 아동뿐 아니라 내국인이든 외국인인든 상관없이 남녀노소 모두는 교회공동체와 예배라는 중간공간에서 삶의 고단함과 고민, 상처들을 내어놓고 쉼을 얻어 세상에

서 살아갈 힘을 얻어 갈 수 있어야 한다.

‘성스러운 놀이(Godly Play)’에서는 놀이로서의 예배에 대한 의미와 새로운 방법들을 제안하였다. 특별히 ‘성스러운 놀이(Godly Play)’의 예배는 성경 이야기를 학습하는 활동과 연결하여 운영된다. 놀이 예배에서는 시청각적 이미지, 상징, 예배하는 행위가 강조되며, 그 과정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후에 말씀이 선포되며 서로 감사한 삶을 나눈 후 파송하기로 진행된다. ‘성스러운 놀이(Godly Play)’의 예배에서처럼 구성원이 예배에서 각자의 역할을 맡아서 소통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교육적 효과가 크며 영적인 성장도 기대된다. ‘성스러운 놀이(Godly Play)’는 이미 인간이 하나님의 존재에 관해 인식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놀이 내용을 선정하고 조직한다. 예를 들어 성경 이야기를 소개할 때, 듣는 이들이 이와 관련된 그들의 예전 경험과 신앙적 체험을 적절한 놀잇감을 사용하여 표현하도록 한다. 더 나아가 ‘성스러운 놀이(Godly Play)’는 여러 가지 놀이를 통해 삶 속에서 하나님의 현존을 계속 추구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Berryman, 2009).

또한 ‘성스러운 놀이(Godly Play)’의 성경 이야기와 질문에 관한 연구는 다문화 가정에게 놀이목회상담을 적용할 때 성경 이야기를 접목시키는 데 적합하다. 놀이목회상담사는 다문화 가정들이 자신의 경험이나 세계관에 따라 성경 이야기를 이해한다고 전제하고, 이들이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한편 성경 이야기를 활용한 놀이목회상담으로는 성경의 인물들을 주인공으로 만든 역할극과 집단 놀이 등 여러 놀이의 형태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다. 모든 놀이 유형은 성도들에게 상징과 이미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시키거나 감정을 이입하기에 효과적이다. 성경의 이야기들 중 예수님의 여러 비유(parables) 이야기들도 ‘성스러운 놀이(Godly Play)’에서 중요한 학습 내용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스러운 놀이(Godly Play)’는 예수 그리스도가 비유를 통해 제

자들과 소통하기 원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성도들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바를 놀이의 비유로 알아차릴 수 있기를 희망한다(Berryman, 2009).

본 연구자는 15년간 교회현장에서 사역했던 다문화 가정, 이주노동자들과의 예배에서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등 중요한 절기 때마다 외국인들에게 본인들의 전통 옷을 입고 자국어로 된 성경 본문을 각 나라 공동체가 함께 성경 공부를 한 후 시나리오를 스스로 작성하여 복음의 핵심이 담긴 역할극이나 손인형극을 발표 하도록 하였다. 이 때 서로 다른 언어로 표현되는 연극이라 할지라도 그 성경 이야기의 내용을 알고 있는 다문화 형제, 자매들이 연극을 마치고 서로 받은 감동을 몸짓으로 표현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깊이 공감하고 감동받는 모습을 자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추석, 설날과 같은 명절에는 외로운 다문화 성도들이 레크리에이션과 집단놀이 프로그램 등을 자신들의 전통 놀이와 접목하여 각 나라 리더와 공동으로 함께 기획하고 진행 하도록 격려했다. 이를 통해 서로 다른 민족들도 다문화 놀이 경험 안에서 마음을 열고 감정을 정화하며 회개하는 가운데 구원의 기쁨과 이웃 사랑을 함께 느끼게 되었다. 이와같은 놀이목회상담을 통해 다문화 가정들은 고향에 두고 온 가족들을 향한 그리움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족처럼 표현하고 함께 느낄 수 있어서 그 고마움으로 인해 눈물 흘리며 간증을 나누었던 경험이 많다.

Berryman은 누군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대해 더 넓게 알기를 원할 때 이를 위해 가장 적합한 시기에 가장 적절한 상징을 소개함으로써, 삶에 대한 효과적인 해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이때 놀이와 같은 비언어적인 이미지나 몸짓을 개입하고 적용시키라고 권한다(Berryman, 2009). Berryman이 권하는 비언어적인 몸짓의 개입은 종교적인 언어를 설명하는 중요한 상징이다. 그렇다면 종교적인 언어란 무엇인가? 종교적인 언어란 우리를 하나님과 자아, 타인

들, 자연, 그리고 하나님의 전체 조직망에게로 더 가까이 가도록 돕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를 그 언어의 행동들, 상징들, 이야기, 은유들 안으로 들어가도록 초대해서, 실존의 한 모서리에서 놀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러한 과정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다. 이때 종교적인 언어는 언어적인 요소와 비언어적인 표현을 통해 존재의 통찰이 담기는 ‘감탄의 언어’이며, 우리 존재와 삶의 한계 안에서 의미를 창조해내는 도구이다. 놀이 예배의 한 방법인 ‘성스러운 놀이(Godly Play)’는 이와 같은 종교적 표현을 통해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 존재로서 보는 새로운 관점을 깨닫도록 돕는 놀이를 하는 것이다 (Berryman, 2011).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도록 창조된 피조물로서 우리의 진실된 정체성을 발견하도록 돕는 한 방법이기도 하다.

양금희(2011)는 ‘성스러운 놀이(Godly Play)’의 가능성이 가정, 가족, 예술, 과학, 구원을 위한 놀이들조차도 새롭고도 놀라운 틀 안으로 초대한다고 동의하였다. ‘성스러운 놀이(Godly Play)’는 하나님을 아는 방식의 한 방법이며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한 놀이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놀이자로 하여금 은혜를 체험하게 한다. 그 안에서 하나님, 놀이자, 그리고 하나님의 세계 전체가 예배에 즐겁게 참여할 수 있다. 이러한 놀이의 예배적 접근은 우리를 하나님의 부르심 앞으로 초대한다. 모든 놀이에 규칙이 있듯이 하나님 나라의 놀이에도 규칙이 있다. 하나님 나라 놀이 터에서의 놀이는 하나님과 더불어 놀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놀이어야 한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늘날도 경험하는 절기와 축제들을 보면 놀이 안에서 하나님 백성으로써의 역사를 회상하고 기념하며 축하하는 것을 볼 수 있다(양금희, 2011).

놀이 예배의 치유적 기능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심각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지는 놀이의 삶이 가장 심각하고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다. 놀이 의식의 핵심은 심미감이다. 놀이 예배는 통제가 불가능한 초월적인 힘,

즉 성령님과 환경에 대한 경외감과 아름다움을 온몸으로 맛볼 수 있도록 한다. 둘째는 놀이의 시적 상상력이다. 놀이는 모방이 아니라 자신 안에서 경험 되어지는 창조성이다. 세 번째는 놀이의 창조성이다. 창조성은 변화이다. 네 번째는 놀이의 치유 기능이다. 이는 놀이의 심미감, 시적 상상력, 창조성, 모두를 통합한 기능이다. 놀이하는 인간은 무경계의 상태에 자신을 놓을 때 세상을 향해 열려 있게 된다. 이때 치유가 일어난다(김재은, 2004). 교회공동체 내의 다문화 가정들도 언어의 장벽을 넘지 못하는 어려움을 놀이로 뛰어넘으며 복음의 진수에 대한 심미감, 시적 상상력, 창조성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특히 다문화 가정의 아동들이 겪고 있는 심리적 곤란은 정체감 혼란, 낮은 자아존중감, 불안, 심리적 외상, 문제행동 표출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Baruth & Manning, 2007). 다문화 가정의 아동들은 가정과 학교에서 만나는 관계들 외에 교회 사역자와 교회교사, 자신들을 돌보아주는 교회 관계자들과 교회 친구들이라는 새로운 인간관계 안에서 문화적 사회적 관계 맺기를 한다(Meissner, 1990). 따라서 이들이 안전한 교회공동체 안에서 복음을 접하게 될 때에 세상을 이해하고 성장하는데 있어서 기독교 가치관 아래서 성장할 수 있게 된다. 아동에게 종교적 상징은 아동이 성장하여 그 대상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게 될 때에 그 가치가 표현된다. 그러므로 아동이 자라며 관계 대상으로서 만나는 부모, 선생님, 사역자, 놀이치료 전문가가 모두 아동에게 의미 있는 대상이기에 다문화 가정의 아동들이 교회공동체 안에서 놀이목회상담으로 복음화 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하고 시급한 사역이다.

James Fowler는 하나님에 대한 아동의 이미지는 부모에 대한 종교적 이미지들의 특징이 내재되어 있음을 설명하였다. 그는 자녀에게 신앙을 안전하게 심어주는 부모는 자녀에게 안정감을 심어주고, 반대로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파괴적일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경험들은 자녀의

성장과 양육에 가장 중요한 종교의 뿌리가 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안정적이고 양육적인 부모 경험을 하지 못한 아동들의 경우에는 하나님에 대한 종교적 이미지도 부정적일 수 있다(Fowler, 1987). 따라서 다문화 가정 아동의 부모들이 복음화되고, 또한 교회 공동체의 사역자 또는 교회 교사가 놀이목회상담을 통해 긍정적이고 공감적인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면 다문화 가정 아동들은 하나님에 대한 종교적 이미지를 올바르게 형성하고 굳건한 신앙을 지닐 수 있게 될 것이다.

III. 닫는 글

전병철(2018)은 초대교회도 문화 간 가치 충돌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실상 ‘다문화’ 교회였다고 주장한다. 그는 교회가 관용을 바탕으로 사회 통합의 통로가 되어야 하며 다문화 사회화 과정에서 교회는 사회통합적인 기능을 감당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그는 이 땅에 이방인으로 오셨던 예수님이 누울 곳이 없어 구유에 놓이셨지만 안전하였던 것처럼, 갈 곳 없는 다문화 가정들을 교회마저 품지 못한다면 그들의 안전은 위협받을 것이며 교회가 그들을 향해 문을 굳게 닫는다면 교회됨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교회공동체는 다문화 가정들에게 구유와 같은 안전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목회상담은 일반 상담과 달리 풍성한 신앙 자원을 통해 고난당하고 있는 다문화 가정에게 안전함과 영적 활력, 그리고 희망을 고취시켜 줄 수 있는 데에 그 장점이 있다. Lawrence J. Crabb(1982)은 인간에게 가장 기본적인 필요 욕구인 중요성(significance)과 안전(security)이 위협당했을 때 정신 정서의 왜곡이 생기는데, 이는 성경적 상담방법(Biblical Counseling)을 통하여 치유 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즉 성경적 상담방법

을 통해 인간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무조건적이고 계속적으로 용납 받고 있다는 안전감이 충족될 때, 비로소 정신 정서의 왜곡은 치유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나라에 넘쳐나는 다문화 가정들이 소외감과 두려움 속에 힘겨워 할 때 교회공동체는 성경적인 상담방법으로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계속적인 사랑 안에서 그들을 용납하고 다가갈 수 있어야만 진정한 복음주의 선교는 가능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다문화 가정을 위한 성경적인 상담방법의 하나로써 성경 이야기를 적용한 놀이목회상담을 제안하고 고찰해 보았다.

본 연구는 다문화 가정이 이 땅에서 안전감을 느끼며 제대로 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돕는 것에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복음 선교를 위한 목회적 돌봄의 한 방법으로 성경의 내용을 적용한 ‘놀이로 드리는 예배’와 예수님의 비유 내용을 기초로 공동체가 함께 놀이하는 ‘놀이목회상담’을 제안하였다. 특히 언어의 차이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어 온 다문화 가정은 놀이로 드리는 예배와 놀이목회상담을 통하여 억압해 온 침묵을 깨고 아픔을 마음껏 표현하며 하나님과의 새로운 신앙이야기를 통한 복음화에 한 층 다가갈 수 있다. 김미경(2018)은 상담자와 내담자는 내담자 삶의 문제와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치료적 대화를 통해, 인생의 공동저자로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에 내담자 본인이 참여하도록 돕는 관계가 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억압되었던 한 개인의 삶은 빈약한 이야기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이 삶 속에서 실현됨을 맛보는 풍성한 이야기로 다시 표현될 수 있다고 하였다. 우리사회의 다문화 가정들도 교회로부터 따뜻하고 인격적인 목회적 돌봄을 받을 수 있다면, 교회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실현됨을 맛보는 풍성한 이야기들을 언어뿐만 아니라 그 외의 다양한 표현들을 통하여서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앞으로도 다문화 가정들을 위한 놀이목회상담의 방법뿐만 아니라 더 구체적인 목회상담의 방법들을 제시하는 연구들이 계속 받

전되어 가기를 기대한다. 또한 이러한 실제적인 연구들과 사역들이 교회로 찾아오고 있는 다문화 가정들에게 진정한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주춧돌이 되어 외국인들을 위한 국내 선교의 장이 더욱 확장되기를 소망한다.

【 참고문헌 】

- 강문규 (2017). 현대 한국사회의 다문화 가정에 대한 기독교교육적 모색. *신학과 실천*, 56, 545-575.
- 구영철 외 (2004). *하나님 나라와 이주 노동자 선교*. 서울: 기독교 산업사회 연구소.
- 김금자 (2009). 다문화 가족의 자녀교육에 관한 문화기술적 연구: 한국-베트남 결혼이민자가족을 중심으로. 평택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미경 (2018). '침묵'에 대한 기독교상담적 접근. *복음과 상담*, 26(1), 65-92
- 김상일 (1988). 전통문화 속에서 본 놀이의 재조명. *기독교사상*, 32, 24-35.
- 김옥순 (2011). *디아코니아 신학*. 서울: 한들출판사.
- 김옥순 (2014). 다문화 사회 속에서 한국교회의 디아코니아 역할에 관한 연구. *신학과 실천*, 41, 447-485.
- 김정원 (2017). 구약 본문의 이방인 이해를 통한 다문화 수용정책. *성경과 신학*, 4, 109-136
- 김재은 (2004). *기독교 성인교육*. 서울: 한국기독교 교육학회.
- 계재광 (2016). 다문화가족을 포용하기 위한 교회 공동체에 대한 연구. *신학과 실천*, 52, 711-745.
- 박천웅 (2006). *이주민 신학과 국경 없는 마을 실천*. 안산: 국경없는 마을.
- 변영인 (2010). 한국의 다문화 가정을 위한 기독교 상담. *복음과 상담*, 15, 181-201.
- 변영인 (2018). 한국의 다문화 가정에서의 아동 이해와 교회에서의 기독교 상담에 관한 고찰. *복음과 상담*, 18, 160-186.
- 서연숙 (2014). 다문화 사회 진입에 따른 한국 교회 대응 방안 연구. *신학과 실천*, 39, 481-510.
- 서은경 (2009). 다문화 가정에 대한 기독교 상담학적 접근에 관한 연구. *성경과 상담*, 9, 174-202.
- 안경승 (2005). 타문화 선교현장에서의 기독교상담. *복음과 상담*, 5, 137-160.
- 안경승 (2011). 다문화 시대와 기독교상담. *ACTS 神學과 宣教*, 12, 551-572.
- 안경식 외 6인 (2008). *다문화 교육의 현황과 과제*. 서울: 학지사.
- 양금희 (2011). *기독교 유아 아동교육*.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 염숙경 (2002). *아동상담과 놀이치료*. 서울: 상조사.

- 오윤선 (2012). 감사가 기독교 청소년의 행복감 증진에 미치는 효과연구. **복음과 상담**, 18, 237-263.
- 유네스코 아시아 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엮음 (2008). **다문화 사회의 이해**. 경기도 : 동녘출판사.
- 임경수 (2004). **인간발달이해와 기독교 상담**. 서울: 학지사.
- 전요섭 (2013).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 간 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신앙, 자아존중감, 결혼 적응, 양육태도와 아동의 정서적 고립감 및 학교부적응 간의 구조적 관계. **복음과 상담**, 20, 246-279.
- 전형준 (2013). 다문화 가정의 청소년 자녀를 위한 개혁주의 목회상담 방안. **개혁논총**, 27, 261-290.
- 전형준 (2018). 목회상담가로서의 요한 칼빈 재조명. **복음과 상담**, 26(1), 237-264.
- 조귀삼 (2012). 다문화아동의 학업적응을 위한 선교 케어 연구. **복음과 선교**, 22, 279-311.
- 조혜정 (2011). 다문화 교육에 관한 교회학교 교사의 신념과 실제. **복음과 실천신학**, 23, 220-245.
- 차용호 (2008). 이민자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방향. **한국이민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
- 최승근 (2015). **예배**. 서울 : 두란노.
- 한국일 (2012). 다문화 이주민 선교 : 독일교회 사례를 중심으로. **선교와 신학**, 29, 62-64.
- 한숙자 (2011). 한국의 다문화 가정에 대한 기독교상담전략의 모색. **복음과 상담**, 17, 9-43.
- 한재희 (2004). 한국문화와 다문화 목회상담. **목회와 상담**, 5(2), 11-42.
- Augsburger, D. W. (2005). **문화를 초월하는 목회상담**(임현만 역, *Pastoral counseling across cultures*). 서울: 그리심. (원전 1985 출판).
- Baruth, L. G. & Manning, M. L. (2007). *Multicultural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A Lifespan Perspective*. New York: Prentic Hall.
- Berryman, J. W. (1999). Silence is Stranger Than It Used to be: Teaching Silence and the Future of Humankind. *Religious Education*, 94(1), 265-266.
- Berryman, J. W. (2006). *Young Children and Worship*. Louisville: Knox Press,

- Berryman, J. W. (2009). *Teaching Godly Play: How to Mentor the Spiritual Development of Children*. Denver: Morehouse Education Resources.
- Berryman, J. W. (2011). *가들리 플레이*(양금희, 김은주 역, *Godly Play*).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원전 1995 출판).
- Caillois, R. (2012). *놀이와 인간*(이상률 역, *Man, Play and Games*). 서울: 문예출판사. (원전 2001 출판).
- Cox, H. (1973). *바보제*. (김천배 역, *The Feast of Fools*). 서울: 현대사상사. (원전 1969 출판).
- Crabb, L. J. (1982). *성경적 상담학*. (정정숙 역, *Basic Principles of Biblical Counseling*). 서울: 충신대 출판부. (원전 1975 출판).
- Clinebell, H. (1988). *성장상담*. (이정현 역, *Growth Counseling*).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원전 1982 출판).
- Erikson, E. H. (2014). *유년기와 사회*. (송제훈 역, *Childhood and Society*). 서울: 연암서가. (원전 1993 출판).
- Gerkin, C. (1999). *목회적 돌봄의 개론*(유영권 역, *An Introduction to Pastoral Care*). 서울: 은성출판사. (원전 1997 출판).
- Huzinga, J. (2018). *호모루덴스-놀이하는 인간*(이종인 역, *Homo Ludens: A study of the Play-Element in Culture*). 서울: 연암서가. (원전 1992 출판).
- Lartey, E. (2011). *상호문화 목회상담*(문희경 역, *In Living Color: An Intercultural Approach to Pastoral Care and Counseling*). 서울: 대서. (원전 1994출판).
- Lester, A. D. (1999). *어린이 위기상담과 보살핌*(신민규 역, *Pastoral Care with Children in Crisis*).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원전 1985 출판).
- Meissner, W. W. (1990). *The Role of Transitional Conceptualization in Religious Thought*. Joseph H. Smith & Susan A. Handelman ed., *Psychoanalysis and Religion*.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O' Connor, K. J. (2003). *놀이치료 입문*(송영혜, 윤지현 역, *Play Therapy Theory and Practice*). 서울: 시그마프레스. (원전 2008 출판).
- Sue, D. W. & Sue, D. (2012). *다문화 상담*(하혜숙, 김태호, 김인규, 이호준, 임은미 역, *Counseling the Culturally Diverse : Theory and Practice*). 서울: 학지사. (원전 2015 출판).

- Segal, H. (1999). **멜라니 클라인: 멜라니 클라인의 정신분석학**(이재훈 역, *Introduction to the Work of Melanie Klein*). 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원전 1989 출판).
- Winnicott, D. W. (1997). **놀이와 현실**(이재훈 역, *Playing and Reality*). 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1997. (원전 1971 출판).
- 국민일보(2018). 다문화 가정 100만 세대... '동행 대책' 눈길. 2018. 9. 20 검색,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754272&code=11131100&cp=nv>
- 국민일보(2018) 이주민은 우리 곁에 하나님이 보내준 선교지... 그들에 대한 교육 등 교회가 해야 할 일 많아. 2018. 9. 10 검색,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587326&code=11171396&sid1=i>

【 Abstract 】

A Research on Play Pastoral Counseling
for Missionary Work on Multi-Cultural Families

Park, Eunjung

Westminster Graduate School of Theology

The article suggests Play Pastoral Counseling as a method for pastoral counseling with regard to the missionary work of domestic multi-cultural families, and deals with the gist of Play Pastoral Counseling. While Korean Churches concentrated their effort on propagating gospel effectively through sending missionaries overseas, nowadays multi-cultural families are on the horizon as the object of missionary efforts. The author has been in charge of multi-cultural service in the span of 15 years for foreign workers in a church. Based on this experience, I propose ‘Play Pastoral Counseling’ as the effective tool for evangelizing multi-cultural families. Because play has the power to make people relax and be moved, we feel catharsis when we play. Johann Huizinga emphasizes that the role of play is the corridor connecting the principal elements of culture like human religiosity, poetry, art, etc. When God created this world there were order and joy of creation. People who have diverse cultures and languages, by participating in play service for God, would be made whole and be restored as God created them in the beginning to participate in the order and joys of creation. The article researches general and theological understandings for multi-cultural families firstly. Secondly, it individually reviews play generally, psychologically and theologically. Thirdly, it discusses Play Pastoral Counseling as the effective tool of worship for evangelizing multi-cultural families.

Key Words: multi-cultural counseling, pastoral counseling, Biblical counseling, godly play, play pastoral counseling